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수상

- 경제적 철도건설, 공정사회구현, 일자리 창출 성과 인정받아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에 따르면 공단은 10월 29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3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에서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2011년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설계와 시공을 재검토해 과잉 시설을 줄이고 경제적 공백으로 개선하여 이용편의시설을 늘리는 등 이용자 중심의 경제철도건설을 통해

최근 2년간 1조738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14개 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개통했다. 또, 불법하도업제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철도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등 발주처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투자 확대('04년 2조8000억원 '13년 7조6000억원), 역세권 개발과 민간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 및 해외 공동 진출 등을 통해 최근 2년간 18만 명의 민간부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나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김광재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주어진 사업의 책임을 완수하고 미래 철도산업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 할 것"이라면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건설로 국민 행복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다

- '2013년 사랑의 연탄나눔' 재개식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10월 30일 대전연탄은행과 '2013년 사랑의 연탄 나눔' 재개식 행사를 갖고, 연탄 3만장과 라면 100박스를 기증했다. 또 김광재 이사장과 임직원 100여 명은 직접 철로변의 소외가정 50여 가구를 찾아 연탄 1만 여장을 배달하여 사랑의 온기를 나눴다. 김 이사장은 "올해부터 대전 동구 다기능노인복지관에 연탄 5천장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을 먼저 돌보는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2006년부터 철로변 소외가정에 연탄 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금까지 총 24만장(1억2000만원 상당)의 연탄을 기증했다.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사 건설 본격 추진

- 검암역과 운서역 사이 위치, 2014년 12월 개통 예정 -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와 운북동 일원 지역주민들이 공항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종역사를 11월 중으로 본격 착공하여, 201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영종역은 인천공항철도 검암역과 운서역 사이의 운북동 검산C부근에 위치하며, 인천시가 사업비 311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공단이 건설하는 수탁사업으로, 역사건물과 승강장, 선상여객통로가 건설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4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여 인천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이 쉬워지고, 수도권 전철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항선개량 등 4개 사업 설계최적화로 비용절감

건설본부(본부장 이동춘)는 이용자 중심의 경제적 철도건설을 위해 최적의 선형 도출, 정가장 위치 조정, 교량 연장 및 터널단면 축소 등을 통한 설계최적화로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의 3개 사업에서 1628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본부는 기존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현지역간에 부합하는 최적의 노선 및 구조물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의 연역차별개량 최소화(239억원), 역사 접근성과 정래 도시개발을 감안한 역사 위치 및 선형 조정(316억원), 교량 연장 축소(235억원) 등으로 954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립~영천 복선전철 사업에서 선형조정을 통한 하천 및 도로 통과방법 개선 및 교량기초 공법 변경 등으로 230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의 터널단면 최적화 및 교량 연장 조정으로 331억원, 동두천~연천 사업에서 교량 상부형식 조정 및 선형 최적화로 1139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부 관계자는 "김광재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은 경제적 설계·시공을 통한 철도 경쟁력 확보 및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철도건설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생토론 및 기술세미나

- 신호/통신 분야 효율적 시스템적용 및 상생의 융합전략 추진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욱)는 10월 28일 본사에서 신호/통신 분야 신기술 공유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상생의 융합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통신공사협회, 철도신호기술협회, 철도기술연구원, 철도공사, 지자체 도시철도운영기관, 협력사 등 120여 명이 참석하는 '신호/통신 상생토론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전에 진행된 상생토론회에서는 공단 사업 추진 현황 및 신호통신사의 운영 기반방향, 공단의 정부3.0 세부추진 계획을 공유했으며, 공단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철도 및 윤리경영 전략과 소통 등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했다. 오후 기술세미나에서는 공단, 철도기술연구원, 협회 등 국내 철도신호 및 통신 유관기관과 협력사 등이 참여하여 공단의 신호 및 통신융합 표준화방안, 무인 운전 열차제어시스템 및 철도전용 통합무선망(LTE-R), 차세대 전송기술 등 8

건의 신기술 및 철도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임 본부장은 "기술세미나 시행 결과를 반영한 향후 열차제어 시스템 및 통합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철도기술력 향상은 물론, 최적의 건설비용을 반영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협력사 및 유관기관과의 상생을 통해 철도 신호통신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청렴의식 확산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인천논현역 및 소사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시행

- 11월 5일 수도권본부서 사업 설명회 개최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토지 활용가치가 높고 개발일자리가 양호한 수인선 인천논현역(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31-4 일원, 3431㎡) 및 경인선 소사역(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95번지 일원, 2만8266㎡) 철도시설부지를 대상으로 11월 5일 수도권본부에서 사업주관자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인천논현역 및 소사역은 민간제한 공모 시 민간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부지로,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권에 위치하고 있고 개발잠재력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이에 따른 밀집 여객수요 증가 및 시설 확충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복합시설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0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60일간 사업주관자 공모를 실시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주관자 공모로 철도역사와 연계한 안전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철도자산을 활용한 정용료 수익도 발생하므로 앞으로도 철도역사와 연계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목표 대비 197% 초과 달성

연구원(원장 최성영)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 하절기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부방향을 적극 수행한 결과, 목표했던 126.02Mwh보다 197% 많은 374.43Mwh를 절감했다. 공단은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난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시기에 공공부문에 에너지 절약을 실천 수범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하절기 실내온도 28℃ 이상 유지, 피크시간대 냉방기 순차운용, 연중 점심시간 절전 및 야간조명 자동 소등, 엘리베이터 격층·제한 운행, 에너지 절전형 LED 조명 교체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공간의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역사 등 철도시설물을 건설할 때에도 전력난 극복을 위해 총 전력 소비량의 20%를 태양광, 지열, LED 조명 등을 활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역사 및 폐선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연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장대레일, 새벽을 가른다!

- 300m 장대레일 차질없이 부설 -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구간의 2014년 완공을 위해 8월 31일부터 정음역을 시작으로 300m의 장대레일을 본격 수송·부설하고 있다. 고속철도 레일은 1개당 300m의 길이로 오송 시설장비사무소에서 제작되어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새벽 0시에 전용수송차량으로 총복선 → 경부선 → 호남선을 거쳐, 신설되는 호남고속철도구간에 05시에 도착, 기 시공된 68%로 14년 크리트 도상 위에 부설한 후 다시 용접하여 오송~광주송정 구간만에 이음매가 한국에도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 인한 열차 운행 중 소음·진동이 기존 일반열차에 비해 획기적으로 감소되며, 승차감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는 이종의 효과가 있다. 오송~광주송정간 호남본부 관할 구간은 익산~광주송정간 2개도2공구 구간으로 총 96.5km(복선기준)의 장대레일(1310개)이 부설되며, 전용 열차로 1회당 26개(단선기준 3.9km분)를 수송·부설하여 현재까지 11.7km(12%)를 시공했고, 내년 4월까지 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대레일부설과 함께 전차선, 신호, 통신 등 후속공정을 병행하여 시공함으로써 내년 4월부터는 기 완성된 호남고속철도차량 1호(1편성)가 약 두달간 시운전을 하게 되며, 연말에는 각종 안정성 시험을 완료한 후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3년 10월 현재 호남고속철도 2개도2공구 공정율은 43%이며, 올해 말엔 68%로 14년 말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품질,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남본부 한상우 기자)

